FX Market Daily

2026-09-14

전일동향

국제유가 오름세에... 1,344.10원에 마감

11일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1,339.20원(15:30 기준) 대비 8.50원 상승한 1,347.70원(06:00 기준)에 개장했다.
미국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와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며, 1,344.10원에 종가(06:00 기준)를 기록했다. 일간 장중 변동 폭은 13.2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873.89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47.70	1349.90	1336.70	1344.10	1346.40
엔화	870.79	874.48	869.22	873.89	-
유로화	1561.65	1567.18	1550.01	1556.59	-

* 시가/고가/저가/종가 : 달러는 익일 06: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33	-1.81	-4.81	-11
결제환율(수입)	-0.02	-0.5	-2.73	-7.34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美 연준 경계감에...1,34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3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345.90, 15:30 기준) 대비 4.60원 하락한 1,341.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 금리인상 경계감으로 상승 전망한다. 최근 중동지역 불안 고조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고 있고, 미 국채 금리 상승에 기술주 조정까지 이어지며 위험회피 분위기가 점차 짙어지고 있다. 여기에 금주 목요일 예정된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 긴축에 대한 경계감이 불거졌고, 수급 측면에서도 그간 환율 상방을 제한했던 국민연금의 환헤지가 중단되면서 이전보다 상단이 다소 열린 상황이다. 아울러 ECB와 BOJ 등 주요국도 긴축 국면이라는 점도 원화에 악재로 작용하며, 금일 환율은 상승 우위의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반도체 기업을 필두로 한 수출업체 네고물량의 출회는 환율 상단을 지지할 전망이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37.33 ~ 1350.33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2984.12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4.60원↓
	■ 美 다우지수 : 52573.29, +509.19p(+0.98%)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77.6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431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